천진불들 합창, 佛都 부산 장엄하다

2월 16일 제6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 매료
전국 13개 합창단으로 참가
아이들 맑은 울림 극장 채워
찬불가 합창 통한 포교 눈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2월 16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6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

천진불이 부르는 아름다운 화음의 찬불가가 포교의 결실이 되어 울려 퍼졌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영산 스님)는 2월 16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6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

불교음악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합창제는 올해 여섯 번째를 맞아 더욱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행사에는 총재 지현 스님(관음사 회주), BBS부산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정무 스님을 비롯해 동련 부총재 덕진 스님, 회장 영산 스님, 동련이사 신공 스님,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주지 성원 스님,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 서암정사 주지 금산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2016년 4개 어린이합창단이 모여 창립된 이후 현재 전국 사찰 소속 13개의 합창단이 활동 중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배우고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매년 연합합창제를 열어왔다. 이번 연합합창제에서는 부산, 울산, 제주, 경남 지역의 다양한 합창단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부산 관음사의 '선혜단이슬합창단', 제주 약천사의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울산 황룡사의 '나모라어린이청소년합창단'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 합창단이 출연해 다양한 불교음악을 선보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연극장을 가득 채우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날 합창제 주제는 '마음 다해 부르는 노래'로, 단원들은 '부처님 되자' '연꽃법당' '넌 나의 참 좋은 날' 등 찬불가를 부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표현했다.

아울러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에 참여한 사찰 및 후원 사찰 10곳에 감사 인증패를 수여했으며 최미선 사무국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해 격려했다.

총재 지현 스님은 격려사에서 "아이들은 때 묻지 않은 부처님이다. 그래서 천진불이라 한다"며 "천진불이 천진불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고운 심성과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불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가는 대작불사"라고 강조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회장 영산 스님은 "올해로 여섯 번째 무대에 올려질 이번 합창제의 주제는 '마음 다해 부르는 노래'이다"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은 아낌없는 사랑이며 지켜봐 주는 일이라는 생각한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시면 감사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원허 스님은 축사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천진불 합창제는 더할 나위 없는 환희로운 법석이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미래의 주역인 천진불들이 피워내는 미묘하고 청아한 소리는 세상을 맑히는 수청주와도 같다"며 "오늘 이 아이들의 순수한 음성은 한 송이의 연꽃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는 큰 울림이 되어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연은 BBS부산불교방송을 비롯한 조계종 교육원 등 여러 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대중공양과 자모회 후원금 등을 통해 마련된 무대는 아이들에게 값진 경험을 선사하며, 불자 가정과 지역 사회의 따뜻한 지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한편,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연합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제7회 합창제에서는 더욱 많은 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불교음악 경연대회 및 합창 캠프 등의 추가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국인 위상 품고 사회로 나아가길"

동국대 WISE캠퍼스 졸업식
2월 14일 100주년기념관서
총 1208명에게 학위 수여



동국대 WISE캠퍼스는 2월 14일 교내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25년 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는 2월 14일 교내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25년 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136명, 석사 65명, 박사 7명 등 총 1208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개식, 삼귀의례, 국민의례, 학사보고, 식사, 치사, 환송사, 축사, 학위수여, 공로상 및 공로패 수여, 교가제창,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출발에 서 있으며, 동국인의 위상을 가슴에 품고 굴하지 않는 용기, 분노하지 않는 자의 식, 그리고 자신을 믿는 신념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환송사를 통해 "오늘의 졸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가 길러낸 자랑스러운 글로컬 인재로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동국대 WISE캠퍼스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동국대 선배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는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청년들에게 하셨다. 동국인 여러분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씩씩한 동국인이 되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며, 개교 118주년의 역사와 전통, 35만 동문을 가진 동국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늘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WISE캠퍼스는 학위수여식을 맞아 교내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했으며, 졸업생들은 학위복을 입고 가족,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졸업의 기쁨을 나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업과 삶의 순환, 화폭에 담다

전등사 서운갤러리, 이유지 작가 개인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술 통한 치유 경험 공유
"선업 실천의 길 고민해보길"


루시드 드림2,162 X 130cm, 캔버스에 유화, 2023.

더 넓은 예술계로 도약을 꿈꾸는 청년작가들의 발판이 된 전등사 서운갤러리가 예술을 통한 치유를 만드는 이유지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강화도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 무설전 서운갤러리는 오는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유지 작가의 개인전 'KARMADAIS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올해 7회를 맞은 '무설전 서운갤러리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를 통해 열린다.

전시제목인 'KARMADAISE'는 'Karma(업, 인과)'와 'Paradise(낙원)'의 합성어로 '업과 삶의 순환'이 함축된 단어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을 통해 인생과 업, 치유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린다.

이 작가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내면의 상처, 삶과 죽음의 관계, 잃어버린 신념을 되찾는 마음 등 복합적인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실과 중첩된 붓질은 수행의 과정을 보여준다. 한 개인의 기억과 경험, 감정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형태로 드러남을 표현한 것. 이 작가는 주술적 상징과 여러 이미지들이 결합한 경험의 형태를 통해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이 부정적 감정을 거르거나 재조합해 치유된 상태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감상하며 예술을 통한 정서 치유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카르마를 쌓는 여정에 동참하길 기대했다. 여암 스님은 "'카르마'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스스로의 태도와 마음을 돌아보고 선한 카르마를 쌓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면서 "전등사 무설전 서운갤러리를 찾는 많은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카르마'에 대해 고민해보며 작가가 이야기하는 'Karmadaise'가 무엇인지, 내가 나아갈 치유와 선한 카르마(선업)의 길이 어디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등사 무설전 서운갤러리는 매년 청년작가 선발 공모를 열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현대미술을 조명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공모에서는 이유지 작가와 함께 설진화 작가가 선정됐다. 설 작가의 전시는 올해 9월 개최가 예정돼 있다. 김가령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2월 16일 26명에 장학금
"참된 사람이 되길" 당부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2월 16일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제20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대행장학회는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대행 선사의 유지를 받들어 발족한 장학회다.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신도로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은 대행장학생(대학) 9명, 한마음장학생 17명(대학원생) 등 총 29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수여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검증된 우수한 학생인 만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참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미소원 청년회, 환경 정화 플로깅

2월 15일 삼락생태공원서


회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환경과 공익을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가 2월 15일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환경 정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미소원 청년들은 시계탑을 출발해 성인야구장, 가족공원을 지나 시계탑으로 돌아오는 3.7km 코스를 따라 플로깅을 진행했다.

이다겸 청년회장은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동시에

"불교 연기로 '지속가능한 삶' 고민해야"

한마음과학원, 김태원 교수 강연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회원 역량 강화와 학문 간 융합을 위해 연간 3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특별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재)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2월 16일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한마음 특별강연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사진〉 강사로 나선 김태원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지구환경과 불교'를 주제로 생태학과 불교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파당 혜정 대종사 열반 14주기 다례재

2월 17일 법주사서 봉행

났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며 "우리 제자들이 더욱 수행하고 정진해 은사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법과 포교에 앞장섰던 원파당 혜정 대종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2월 1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원파당 혜정 대종사 열반 14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문도 대표 조실 지명 대종사는 "혜정 대종사께서 열반한 지 14년이 지

마곡사 불교대학 7기 졸업식

2월 15일 관음전서

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운 지식을 토대로 원력과 기도의 실천을 새롭게 다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마곡사 불교대학(학장 취성 원경 스님)은 2월 15일 경내 관음전에서 '마곡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취임식·제7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올해 졸업식에는 1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다져온 10명의 졸업생과 3명의 수료자가 나왔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치사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